

정보화시대 ... 虛와 實

정보화의 선진국이 되고자 지구촌에서는 지금 뜨거운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우리나라도 초등학교에서 대학에 이르기까지 온통 정보화 물결 속에 인터넷 붐이 일고 있지만 인터넷 사용이 곧 정보화의 기수가 되는 것으로 착각해서는 안된다. 보다 중요한 것은 정보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인 것이다.



權 載 術
〈한국교원대학교수/물리교육〉

21 세기를 정보화사회로 규정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인다. 지금의 현실로 보아 그러한 예측은 최소한 21세기 전체는 아니더라도 21세기의 초기 상태에 대한 예측으로는 상당한 신빙성이 있는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 각국은 정보화의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 안간힘을 쏟고 있다.

정보화사회의 선진국이 되는 것은 토플러가 말한 제2의 물결 사회인 공장 굴뚝 문명사회의 선진국이 되

는 것보다는 어떤 면에서 용이할 수도 있다. 산업사회에서는 큰 자본과 대량의 물자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국토의 크기, 부존자원, 인력 등이 있어야 가능했다. 그러나, 정보화사회에서는 물질적 자원이 아니라 무형의 정보가 자본이기 때문에 매우 작은 자본과 물자로 세계 초일류가 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따라서, 정보화사회의 선진화는 국토의 크기나 부존 자원과 인력이 문제가 되지 않고 아이디어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그 실례로 자본이 없이 단신으로 젊은 나이에 미국의 최고 갑부가 된 빌게이츠를 들 수 있을 것이다. 21세기의 이러한 특성 때문에 많은 개발도상국가와 작은 나라들이 정보화의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 뛰고 있는 것이다.

정보화 선진국 경쟁치열

이러한 면에서 본다면, 우리나라

가 정보화에 매진해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나,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정보화의 모습은 상당히 잘못되어 있는 점이 많다. 초등학교에서부터 대학에 이르기까지 온통 정보화 붐이 일고 있다. 그리고 정보화라고 하면 인터넷을 연상하듯이 인터넷 붐이 일고 있다. 필자도 인터넷을 근래에 들어와서 사용하고 있다. 인터넷을 이용하여 수많은 정보에 접해 볼 수도 있다. 인터넷을 통하여 편지를 주고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편지를 우편으로 주고받던 시절을 생각하면 격세지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인터넷을 통해서 소위 정보사냥에 몇 시간을 보내고 난 뒤에 밀려오는 허탈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인쇄술이 발달하기 전에 책이란 정말로 소중한 것이었다. 책이 너무나 귀해서 저자가 된다는 것은 마치 대학자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시대에는 책을 한 권 쓴다는 것은 일생 일대의 대사였다. 그리고 책을 가지고 공부할 때도 그 책의 글자를 한 자 한 자 정독하고 따지고 분석하면서 공부했다. 책은 으레 손때가 묻고 오래되어, 접히는 곳을 천과 풀로 붙이기 마련이었다.

책 한권을 사면 혼자만 보는 것이 아니라 빌려주고 빌려보고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책을 많이 소장하는 것은 자랑일 뿐만 아니라 일생의 소원이기도 하였다. 그리고, 책은 당연히 좋은 것이었다. 그런데 인쇄술이 발달하면서 책의 출판이 용이해져서 책을 소유하는 것이 어려운 일도 자랑스러운 일도 아니게 되었다.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책의 저자가 될 수도 있게 되었다. 지금은

책의 저자라는 것이 그렇게 명예로운 것도 아니며, 책이라고 해서 다 좋은 것도 아니다. 어떤 책은 읽어 봐야 시간만 낭비하는 것도 많다. 너무나 책이 많기 때문에 적당히 대충대충 읽고 던져 버린다. 이것도 읽고 저것도 읽고 많은 지식을 습득하니 좋을 것 같다. 그러나, 많은 책을 접한다고 해서 정말로 지혜가 증가하는 것은 아니다. 책 한편에 있는 내용도 제대로 아는 것이 없다. 그저 잡다한 정보만 머리를 콕 때우고 있어서 어떤 상황을 파악하고 결단을 내리는 능력은 오히려 감소되었다.

옛날에는 20세가 되면 그 사회의 중추적인 일꾼 역할을 하였다. 그런데, 지금은 20살이면 아직 직장도 없고, 부모의 도움으로 생활하는 아이에 불과하다. 사리 판단 능력도 옛날 사람에 비해서 훨씬 떨어진다. 남이장군이 “男兒二十 未平國이면 後世隨稱 大丈夫리요”라는 시를 읊었는데, 국가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끼는 20세 청년이 요즘 얼마나 있을 것인가? 더 좋은 환경에서 더 좋은 학교 제도하에서 더 많은 책으로부터 더 많은 지식을 배운 현대인들이 이렇게 지적으로 퇴보한 것은 무엇 때문인가?

정보사냥에 시간낭비 많아

이 의문에 대한 해답은 필자가 정보사냥에 시간을 보낸 후에 느낀 허탈감에서도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처음에는 신기하여 세계 각 기관의 홈페이지를 넘나들면서 정보를 접해보지만, 이것도 오래 하다보면 투입한 시간에 비해서 소득이란 별로 없는 것이 일반적이다. 물론, 자기의

연구 목적상 꼭 필요한 정보를 찾는다면 유익한 일이지는 하겠지만 목적없이 정보만 수집해봐야 머리만 복잡해지게 마련이다. 차라리 이러한 목적없는 정보사냥에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는 차분히 무엇을 궁리하는 것이 보다 더 유익할 것이다.

정보는 양면성이 있다. 필요한 경우 정보의 가치는 대단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정보는 오히려 문제 해결을 방해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자기의 문제해결에 필요하지 않은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 그 정보를 보관하는 데 에너지를 소모할 뿐만 아니라, 다른 필요한 정보를 인출하고 인출된 정보를 의미있게 분석하는 과정을 방해하게 된다. 도서관에 책이 분류되지 않은 상태로 쌓여 있다면 그 도서관이 제구실을 하지 못하듯이, 아무리 많은 정보가 있어도 그 정보들이 상호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구조화되어 있지 않다면 쓸모없게 된다.

아무리 정보화사회가 되어 정보의 중요성이 증대된다고 해도 정보의 양을 증가시키는 것이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니다. 정보가 많아지면 정보에 대한 중요성을 망각하기 마련이다. 책이 많아지니 책의 중요성을 망각하고 책을 정독하는 것이 아니라 대충대충 읽고 던져 버린다. 정보가 정보로서의 가치를 갖기 위해서는 그 정보를 해석하고 이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지금 추진되고 있는 정보화의 방향에는 우려되는 점이 없지 않다. 요즘,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인터넷을 가르친다고 야단법석이다. 초등학교 학생들이 인터넷을 통하여 어떤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그들이 얻은 정보가 그들에게 어떤 의미를 줄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 무모하기 짝이 없는 일인 것 같다. 지금 이 시각, 컴퓨터의 인터넷에 들어가서 키보드를 열심히 두드리는 학생들 중 얼마가 학습과 관련된 내용을 찾고, 얼마가 음란물을 찾고 있는지 예상한다면 아마도 후자의 비율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 그것이 초등학교 학생들이 아니라는 보장이 어디 있는가?

차라리 과학·수학공부 중요

인터넷을 사용하는 것이 곧 정보화의 기수가 되는 것으로 착각해서는 안된다. 인터넷의 사용은 전화기의 사용과 마찬가지로 누구나 쉽게 하게 될 날이 몇 년 남지 않았다. 그 때가 되면 왜 인터넷을 배우기 위해서 그렇게 고생했던가 후회하게 될 것이다. 차라리 그 시간에 문제해결력을 더 키워더라면 하는 아쉬움을 갖게 될 것이다.

컴퓨터나 인터넷의 사용은 매우 단순하고 기계적인 기능이다. 이 단순한 기능이 없어서 국제 경쟁에서 지는 것이 아니다. 정보가 없어서 정보화사회에 뒤떨어지는 것이 아니다. 보다 중요한 것은 정보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인 것이다.

진정한 정보화사회의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어린이들에게 인터넷을 가르칠 것이 아니라 과학이나 수학을 더 잘 가르치는 일이 더 중요하다. 모든 사람이 컴퓨터 앞에서 시간을 허비할 것이 아니라 차라리 퇴계선생의 사상을 배우는 것이 정보화, 선진화, 세계화에 더 도움이 될 것이다. ㉞